

지역 매 아리

정읍시청 구내식당 증축

다목적공간으로 활용도 높여

정읍시청 구내식당은 1일 평균 300여명 이상의 이용객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그간 협소한 공간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으며, 또한 청사 내 휴게 공간 부족으로 직원 복지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시는 청사 근무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구내식당 일부 증축과 더불어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을 실시하기 위한 행정절차 이행과 부지매입, 실시설계 등을 마친 상태이다. 기존의 협소한 구내식당을 확장하여 직원과 민원인들에게 부족한 식당과 휴게 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은 내달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실시된다.

증축공사는 지상층에 연면적 110㎡ 규모의 다목적공간으로 조성되며 약 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증축부분은 중식시간을 제외한 평시에는 회의·휴게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중식시간에는 구내식당으로 사용될 예정이다"며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함께 각종 회의 등 업무추진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안전 농산물 위한

우수관리 인증교육 실시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문재권, 이하 농업기술센터)는 13일 정읍시 제2청사 대강당에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교육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교육을 실시했다.

안전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 교육에는 농산물 생산자단체와 농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관심을 보였다.

농산물우수관리(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란 농산물의 생산·수확부터 포장·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농약·중금속·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문 인증기관의 기준에 부합하여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또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재배작물에 등록된 농약사용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들의 농산물 안전관리 지식습득을 돕는 한편 GAP의 전반적인 내용과 인증기준, 절차를 교육함으로써 GAP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하면 복분자! 복분자하면 고창’

군, 복분자 산업 활성화 위해 올해 13억원 투입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지역 3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복분자 산업 활성화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3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지역 특화 작물인 복분자 산업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해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복분자 생산 안정화 지원사업으로 복분자 신규 식재비 지원과 토양 산성화 개선을 통한 지력증진에 도움이 되는 유기농자재를 지원한다.

또 신규 식재농가의 경영비를 절감 지원(7억원), 복분자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이력제(3억원),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를 통한 명품 고창 농산물 홍보(2억450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복분자 고사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실증시험사업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영농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고창군은 1993년부터 농가 소

독작목 및 지역 특화작물로 '복분자' 재배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생산량 증가와 재고 과잉 등에 따른 가격하락, 연작에 따른 고사, 아로니아·멜론 등 타 작물 재배 늘면서 복분자가 외면 받았다.

고창군 관계자는 "복분자 생산 안정화를 위해 생산 농가를 현장에서 만나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농업인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며 "농업인 스스로 복분자를 식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 쓰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이 13일 산불감시원, 진화대원, 군청 및 읍·면 관련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방지인력 발대식'을 실시했다.

산불예방으로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 '앞장'

부안군,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발대식 개최

부안군은 2019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군청과 13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운영 및 소방서, 군부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을 위한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등 산불예방 대비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월 13일 부안군에서는 산불감시원, 진화대원, 군청 및 읍·면 관련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산불방지인력 발대식'을 실시하였으며, 발대식에 참석한 산불방지 대원들은 '산불방지 결의문'을 채택하고 적극적인 산불예방 활동으로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의 최선봉에 설 것을 다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발생한 소규모 산불은 모두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으로 발

생한 것으로 이에 따른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특히 산불 진화 시 인명피해발생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산불방지인력이 부안의 아름다운 숲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부안군에서는 2019년 산불발생 조기발견과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감시원 49명, 진화대원 339명을 주요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에 배치하여 상시 기동순찰을 통한 산불예방 순찰제도 활동을 물론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 단속도 병행 할 계획이며 진화대 및 감시원으로 구성된 산불예방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반 5개반 50명을 편성 2. 15 ~ 3. 20일까지 운영하고 산불

진화차 4대를 이용 취약지역을 중심으로한 기동순찰, 산불진화장비(등짐펌프, 불갈퀴 등 300점)를 점검·배부하는 등 신속한 출동 태세를 갖춰 선제적 대응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한편 '산불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특히, 부안군에서는 논·밭두렁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 산불발생 원인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온 군민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침체되가는 어촌에 활력을”

부안군, 어촌뉴딜 300사업 신규지구 공모 주민설명회 개최

부안군은 지난 12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가 선정하는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신청을 원하는 공소, 공창, 성천, 벌금, 왕포, 모항지구 주민 6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신규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신청 절차, 추진방향 및 타 지자체 성공사례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4가지 유형(해양레저형, 국민휴양형, 수산특화형, 재생기반형)의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생활밀착형 SOC 정비를

위한 공동사업(접안시설 보강, 안전시설 설치, 편의시설 개선)과 유형에 따른 특화사업 및 타 부처 연계사업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모절차는 오는 6월~7월경 공모신청·접수 후 해양수산부 서류심사 및 현장·종합평가를 통해 11월경 최종 선정될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지역주민 모두가 하나 돼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준비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침체되가는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교육생 모집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정읍새일센터)가 경력단절여성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매년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 무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해 왔으며, 2019년에는 5개 분야 사업비 1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내달 18일부터 교육을 시작한다.

올해 모집하는 직업교육 훈련은 5개 분야로 각 과정마다 20명씩 총 100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4차산업SW융합교육전문가, 단체급식조리사, 시니어 드림 전문강사, 기업맞춤 전문실무자교육, 항공드론조종사 전문가 과정으로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소양은 물론 전

문능력을 갖출 수 있는 심도 깊은 교육과 현장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취업희망 여성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내달 12일까지 사전 2매와 취약계층인 경우 확인서류를 지참하여 정읍새일센터(☎534-8219)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김정임 복지여성과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취업과 창업이 용이한 과정을 주로 모집하고 있다"며 "정읍지역 여성들이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인력으로 거듭나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과 사후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공정·안전 건설문화 조성 민관합동 정책 추진

고창군이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구현을 위해 지역건설업체와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고창군은 13일 군청 5층 회의실에서 건설시공과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건설 업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기상 고창군수와 관련 실과장, 건설업 관계자, 자재 생산업체, 설계사무소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중점사항은 ▲설계단계부터 지역주민 참여방안 ▲지역생산 건축자재, 장비사용 및 기술자(노무자)가 우선 고용 ▲1시00사 실천과 명예감독관 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고창군은 올해 지속적인 공사현장 모니터링 시행으로 지역 업체의 참여율을 끌어올려 지역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하도급 부조리와 불공정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약자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할 방침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구현은 물론, 지역 내 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업체 기술력 향상 등 지역건설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정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럽게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감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호 | 750ml 1ea/12%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호 | 375ml 5ea/13%



GIFT SET 6호 | 500ml 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 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